

지역 소식통

부안군, 국화축제 취소
읍면 조경용 꽃묘 분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지역 화훼농가 농장에서 생산한 조경용 꽃묘를 구입하여 화훼농가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가을정치가 풍겨나는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오는 8~9일 관과소 및 읍면에 조경용 국화(가든럼) 6,000주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6,000주의 꽃묘를 구입 관과소 및 읍면에 제공하여 관광부안 경관 조성과 관과소 및 읍면과 연계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에 꽃을 식재해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화축제 취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꽃이 함께하는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국화축제 활성화 및 지역 화훼농가의 소득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래부사 천곡 송상현'
정읍시 학술세미나 성료

정읍시는 8일 내장상동 고크러스센터에서 동래부사 송상현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4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의 전투 중 순절한 동래부사 천곡 송상현의 위상 고찰과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는 육군 박물관 이상훈 부관장의 '천곡 송상현 순절의 의미와 임진왜란'이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부산교육대학교 오인택 교수는 '조선 후기 충렬공 송상현 서사의 사회문화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는 '천곡 송상현의 사상과 천곡 수필'에 대한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원자력 안전은 말 뿐?”

전국원전동맹 “안전한 원전 관리대책 마련하라” 촉구 잇따른 원전사태 우려 표명… 재발방지 대책 등 요구

전국원전동맹에 소속된 권익현 부안군수(부회장)는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섰다온 사태가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동맹은 8일 ‘원자력 안전은 말 뿐인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잇따른 원전 사고원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원전 3, 4호기와 신고리 1, 3호기가 가동중단된 데 이어 후속 태풍인 제10호 하이선으로 월성원전 2, 3호마저 멈추었다”면서 “지진도 아닌 태풍으로 원전 6기가 멈춘 사태에 대해 전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대표 조직인 전국 원전동맹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한빛1호기와 하나원자로 자동정지 사고에 이어 올해 ‘한국판 명품원전’이라고 불리는

신고리 3, 4호기 침수 사고,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한 원전3기 가동중단은 사상초유의 사태”라며 “잇단 사고로 말미암아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최근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국의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보장을 진행했지만 유사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2008년 태풍 매미 때도 고리원전이 가동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태풍으로 인한 원전 가동중단 사태가 반복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원전동맹은 “지금까지 원안위와 한수원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며 각종 원전정책에서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전 인근 지역 314만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국 원전동맹은 방사능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원전정책 결정 시 원전 인근 기초자치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관련 모든 정보를 원전 인근 지자체와 공유하고 원전고장 등 사고 발생 시 현황확인·조사참여권 보장 ▲사고원인에 대한 원전동맹 추천한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주장했다.

전국 원전동맹 부회장이 권익현 군수는 “지진이 아닌 태풍으로 인한 원전에서 유사한 고장과 사고로 인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전 정책이 인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안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 원전정책 추진 시 16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81세 최고령 이발사 · 162회 헌혈…

고창기네스 화제… 엄선된 130여건 공고절차 진행

‘고창에 이런 것(분)도 있었네...’ 고창군이 ‘매력이 넘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홍보를 위해 국내 또는 고창군 최초, 유일, 최고, 독특한 인물과 내용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기네스 접수를 마무리하고 엄선된 130여 건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 기네스는 세계유산, 역사, 인물, 문화체육, 산업경제, 농수축산업, 건축, 교육복지행정, 자연환경, 발난수집·기록가 등의 분야로 구분됐다. 세계유산으로는 고창고인돌, 판소리

와 신재효, 고창농악을 비롯해 올 연 말 등재 예정인 고창 갯벌 등이 포함됐다. 역사분야에선 고창무장기포, 마한왕릉, 고창읍성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인물분야에서 고창 최고령 김귀아(112세) 할머니를 비롯해 84세의 나이로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하영 할머니(81세), 최고령 이발사 김하영 할머니(81세), 162회의 헌혈을 한 김태환(30세) 등의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1991년식 그랜저를 여전한 최고의 성능으로 유지하



고 있는 조희만씨, 세계 각국의 식초를 모아 전시공간을 만든 정일윤씨, 집안 가득 수만개의 골동품을 수집하고 모아놓은 황영근씨 등도 기네스에 선정됐다. 이밖에 현존하는 국내유일 일식여관(조양관), 국내유일 자연적인 직선해안(구시포·동호 명사십리), 100년만에 꽃핀 무장읍성 연꽃, 한그루에 450송이 열리는 유기농 포도나무(도덕원씨), 전국최대 바지락 생산, 국내 최대면적 콩 재배(김복성씨) 등이 포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형 뉴딜사업’ 발굴 총력

정읍시, 총 13개 주요 사업 발굴

정읍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읍형 뉴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뉴딜·사회안전망 분야에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도 이를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읍형 뉴딜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왔다. 현 정권의 지방분권 기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할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발굴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과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발굴한 사업은 ▲빛소리, 향기 디지털아트센터 조성 ▲지역 인프라(비탈면, 교량) IoT 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저수지 관리시스템 ▲한국판 뉴딜 지중화 사업 ▲정읍역 광장 도시 숲 조성 등이다. 발굴된 정읍형 뉴딜사업들은 오는 14일 2022~23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2021년 신규사업개발 보고회를 열고 각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신규 국가 예산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종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12만7000매 전달

고창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12만7000매를 구입해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공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마스크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10월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19 감염병과 함께 환절기에 따른 호흡기질환 등 위험에 노출도가 높아 신속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배부시기는 오는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감염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옥수수 사일리지 장기저장 기술 시범 보급

배합사료 대체로 사료비 절감 젖산 균주 접종 품질향상도

정읍시는 배합사료 대체를 통한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 재배 옥수수 사일리지 장기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배면적은 사료용 옥수수 광평읍 10ha로 1ha당 50여 톤 이상의 수확이 가능하다.

논에서 벼 대신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쌀 수급을 조절하면서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수입 풀사료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논에서 키우는 것에 비해 가뭄 피해를 덜 받아 수량과 품질이 좋으며 벼 대체 작물로 경종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되는 장점이 있다.

옥수수는 축산 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사료작물이다. 사료기치가 우수하고 수량이 많으며 당도가 높아 담근래(사일리지)를 만



정읍시는 배합사료 대체를 통한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 재배 옥수수 사일리지 장기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드는 데 적합한 작목이다.

하지만 옥수수 수확 시 발생하는 곰팡이병과 독소 등으로 인해 가축 먹이가 오염되고 장기저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사일리지 생산 시 변형과 부패를 막기 위해 축산과화원에서 개

발한 젖산균 생성 능력과 곰팡이 억제

능력이 우수한 젖산 균주를 접종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품질 좋은 옥수수 사일리지 생산과 안전 저장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